

12월12일(월)/히8:1~13(2)

### 제목: 마음에 새기는 법

옛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겠지만 옛 것이 불완전하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7절).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는 예레미야 문장을 인용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9절).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파기되었다(9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낳은 것이 되었고 시대에 뒤지므로 곧 사라지게 되었다(13절).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다(10절). 새 법은 내적인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사랑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율법이 강제로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복종하고 싶다는 소원이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

12월13일(화)/히9:1~10

### 제목: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등잔과 상과 진설병이 있다(2절). 그리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다(3~4절). 언약궤 위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는데 속죄판을 그 날개로 덮고 있다(5절).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6~7절).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에 불과한 것이다(8절). 이 제도를 따라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9절). 이 모든 것은 다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외적인 예식에 관한 인간적인 규칙들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유효할 뿐이다(10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그림자이고 희미한 투영이라는 것이다. 참다운 예배와 가장 분명한 죄용서의 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12월14일(수)/히9:11~22(1)

### 제목: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막, 즉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11절).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12절). 동물의 피도 사람에게 죄 속량의 효력이 있는데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은 물론이고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13~14절).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 스스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구약의 동물은 사람 손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이다. 동물은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셨다. 예수님은 무지하게 죽으시기 않았다. 예수님은 모든 사태를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 질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죽으러 가셨다. 예수님께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아가신 것은 ‘사랑’ 하나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2월15일(목)/히9:11~22(2)

### 제목: 세계 최대의 희생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15절). 그는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15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지만 죽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16~17절).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유언)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동물의 피를 취하여 언약궤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을 ‘언약의 피’ 라고 하였다(19~20절). 또 같은 방식으로 그 피를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뿌렸다(21절). 이것은 모든 물품과 모든 인간은 피로써만 깨끗하여 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다. 죄 사함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죄 사함에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희생이 있어야 했다. 그 세계 최대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희생당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충격이 된다. 이 충격이 없이는 인간이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알 수 있다.

12월16일(금)/히9:23~28

### 제목: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위의 제사는 참 제사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나타낸다. 하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깨끗해진다(23절). 그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24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딱 한번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25~26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27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28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후 심판과 관계있다는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심판이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생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신은 먼지와 재로 변하여 악취만 진동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